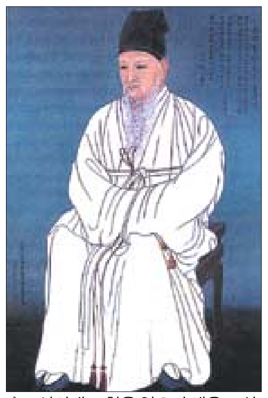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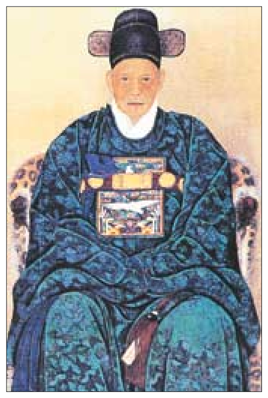

◇조선시대 도학을 일으켜 세운 조식.

◇실학의 근거를 제시한 허목.

◇시·서·화에 능했던 김정희.


◇목숨을 건 구국의 실천자 최익현.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선비'

정옥자 지음

현암사 / 2만5천원

조선 선비 25명 삶을 엿보니…

사명감·지조 중시…국난때 더 빛나

서울대 규장각 관장인 정옥자 교수(국사학과)가 펴낸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선비>는 조선왕조 500년을 통해 구현된, 세상을 바꾸고 경략해 나가는 한국적 고품격 리더십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선비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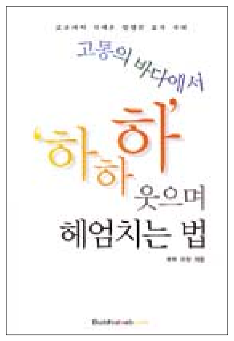
이 책은 선비 정신과 시대 배경에 대해 개괄하고, 조선성리학이 활성화되면서 선비의 활동이 두드러졌던 조선 후기 선비 25명의 삶을 각각 조명하였다. 선비의 리더십은 사회가 어지럽고 외세가 창궐할 때, 국난을 맞았을 때 더욱 빛을 발해 왔다. 시대적 사명감과 책임 의식으로 의리와 지조를 중요시하며 기개 있는 삶을 살다 간 선비들의 삶과 정신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란 명제를 던지고, 오늘날 지식인의 역할과 지도자의 자세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게끔 한다.

또한 조선시대 역대 왕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그들의 글씨와 작품을 실어 왕도 어릴 때부터 이상적인 군주가 되기 위해 교육을 철저히 받았음을 보여 준다. 각 선비의 삶을 소개하면서 그의 저서, 글씨, 그림 등을 비롯, 그와 관련한 인물에 대해서 언급하여 해당 선비의 면모를 파악하기 쉽게 하였다. 간송미술관 등 여러 자료관에서 협조받은 작품 사진과 직접 촬영한 유적 사진, 글씨 탁본 등 총 330여 컷에 달하는 도판을 해당 글과 함께 배치하여 선비와 선비 정신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성리학적 이상 사회를 향한 꿈과 좌절을 겪었던 정암 조광조를 비롯해 조선성리학의 기초를 세운 선비 퇴계 이황, 조선성리학을 구축한 성심(誠心)의 사대부 율곡 이이, 도덕적 카리스마로 문화 국가의 방향을 잡은 선비인 우암 송시열, 붓끝 하나로 조선의 금수강산을 완성한 겸재 정선, 진경 문화 시대의 조선적 시인이었던 사천 이병연, 세계화의 기틀 올린 비범한 선각자였던 연암 박지원, 위정척사의 정신으로 조선의 정체성을 지킨 재야 선비 화서 이항로, 치열한 저항 정신으로 목숨을 건 구국을 실천한 면암 최익현, 세계사적 격변기 비운의 세도가였던 운미 민영익 등 우리가 한번쯤은 그 이름을 들어보았던 선비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조선이 세계에서 단일 왕조로서는 가장 오랜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켜낸 이들 선비 중에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인물을 가늠해 보는 것은 재미도 재미려니와, 단순한 교양 쌓기 수준의 독서를 훌쩍 뛰어넘어 시대적 안목을 얻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고통을 친구처럼 사랑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라

'고통의 바다에서 하하하 웃으며 헤엄치는 법'

페마 최된 지음 / 진우기·신진욱 옮김

부디스트웹닷컴 / 8천5백원

"깨어질 것은 다 깨어지라고 마음을 탁 비우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을 때, 삶이 무엇인지 일러 주려고 내 가슴을 두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내 가슴의 문을 두드리는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비와 사랑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내 꿈은 다 어디 간 거지? 아니 나에게 꿈이라는 말조차 남아있지 않은 건 아닐까?' 하는 허무함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고통의 바다에서 하하하 웃으며 헤엄치는 법>을 한번 읽어 보시라.

하지만 이 책은 단순히 위로의 차원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다. 가볍게 읽고 잠시 기분 전환 하도록 배려한 것도 아니다. 고통을 아주 멀리 쫓아주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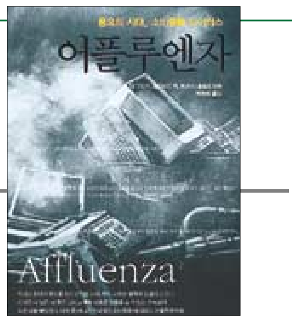
우리들에게 아주 진지하고 하기 어려운 일을 하라고 요구한다. 고통을 친구처럼 사랑하고.

자비롭게 대하라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고통을 대할 때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그 고통을 통해 모든 사람의 고통을 알게되고 좀더 넓은 연민이 생겨난다. 그때 고통은 더 이상 미운 그 무엇이 아니다. 나와 이 세상 모든 것을 이어주는 끈이다. 그를 통해 삶의 깊이를 알고 깨달음을 이루게 해주는 고마운 선우가 된다. 그리고 고통의 바다 속에서 침몰하지도 않고 익사하지도 않고 유유자적하게 웃으며 헤엄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저자인 페마 최된 스님은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 버클리에 소재한 UCLA를 졸업했다. 티베트 불교에서 몇 안되는 비구니이며 금강승 수행을 완성한 최초의 미국인이다. 현재 캐나다 노바 스코시아에 위치한 감포 승원(Gampo Abbey) 원장으로 있으며, 전 세계를 다니며 법을 전하고 있다.

이은자 기자

전문가 서평



'어플루엔자'

존 더그라프 외 지음 / 박웅희 옮김

한숲 / 1만6천원

현대인의 탐욕·물신주의 비판

美 소비지상주의 문화 등 '사회병 인식'

진단·처방·치료 등 현실적 해결책 제시

이미 우리 시대의 고전이 된《오래된 미래 — 라다크로부터 배운다》를 쓴 저자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여사가 라다크를 처음 방문했던 1975년, 이 지역 주민인 체왕 팔조르는 "여기는 가난 같은 건 없어요"라고 자부심에 가득찬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자가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돌아온 대답이었다. 그러나 자신들의 지역공동체 문화에 그토록 자긍심을 가지고 있던 바로 그 청년이, 불과 10년도 지나지 않은 83년, 저자에게 이렇게 말한다. "당신들이 우리 라다크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린 너무나 가난해요." 빈약한 자원과 혹심한 기후에도 불구하고 검소한 생활과 협동,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생태적 지혜를 통해 천년 넘게 평화롭고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해왔던 이 라다크에, 그 짧은 시간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던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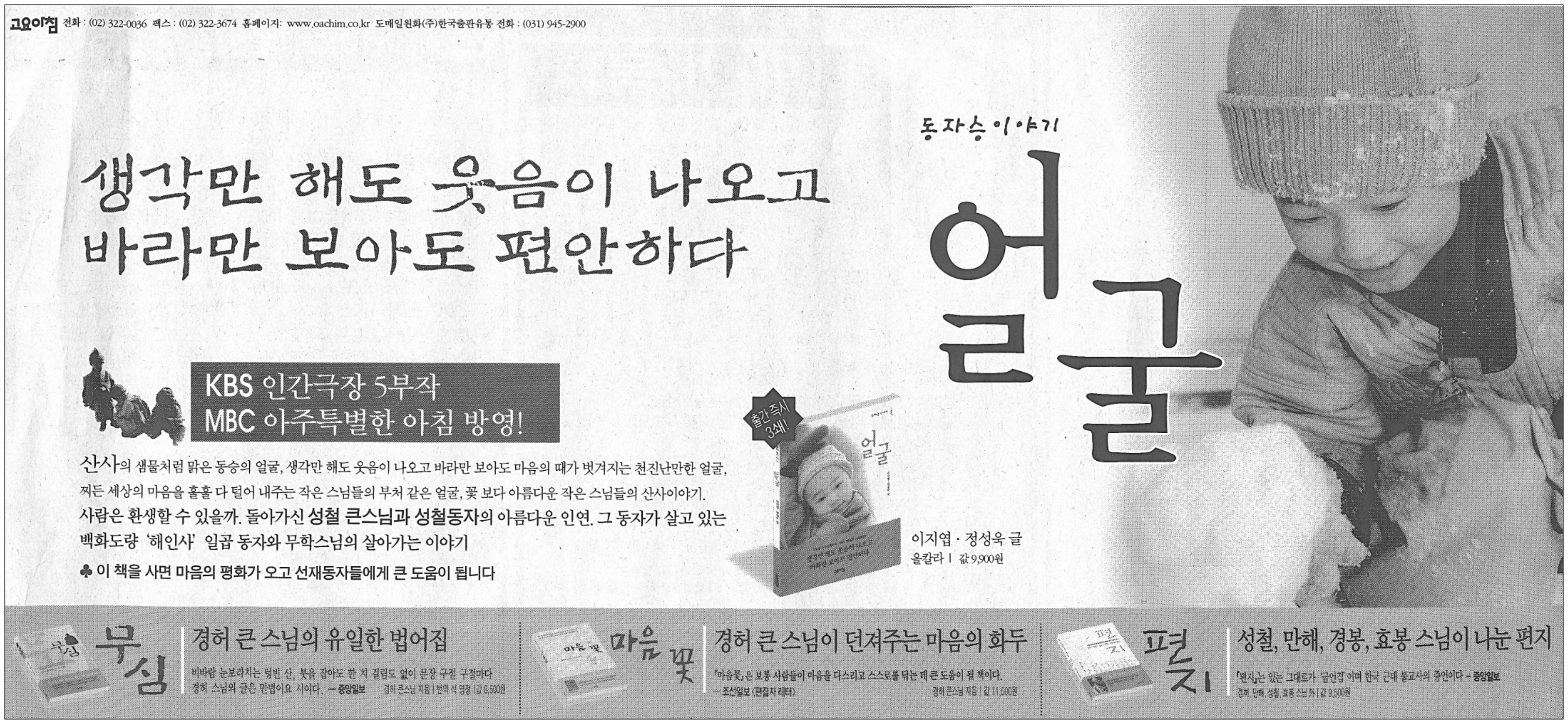
원인은 바로 서구식 '개발'의 시작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이 사회에 환경파괴와 사회적 분열이 일어났고, 인플레이션과 산업이 등장하고, 서구문화에 대한 맹목적인 선망이 일어났다. 오랜 세월 유지되어온 생태적 균형과 사회적 조화가 산업주의의 압력 밑에서 붕괴되기 시작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묻는다. "이것은 필연이 아닌가" 심지어 "이것은 '진보'가 아닌가"라고. 그러나 이처럼 무제한적으로 팽창하는 인간의 욕구, 특히 소비에 중독된 서구식 욕망의 구조는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심각한 '질병', 그것도 '전염병(유행병)'이라고 진단하는 흥미로운 분석서가 번역되어 나왔다. 이 책의 분석과 진단을 빌리자면, 앞서 말한 라다크에도 70년대 말부터 '어플루엔자'라는 치명적인 괴질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현대인의 물신주의와 소비중독 증세를 비판한 책《어플루엔자》는, 소비지상주의 사회인 미국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함께 새로운 생활양식과 인간상을 추구하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저작이다. 특히 이 책이 우리의 흥미를 끄는 것은, 미국 소비문화의 병폐를 어플루엔자라는 '사회병'으로 인식하고, 질병의 진단과 처방 그리고 치료과정을 차용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존 더그라프를 비롯한 저자들은 이 병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인다. "새 밀레니엄의 여명을 뒤덮은 번영과 활황과 낙관적인 분위기의 한 복판에서 시작된 강력한 바이러스가 미국 사회를 침범하여 우리의 지갑과 우정과 가족과 공동체와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그 바이러스를 '어플루엔자'라 부른다. 그리고 미국은 전 세계의 경제적 모델이므로, 모든 대륙이 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다." 즉, 세계화 시대에 이 병은 이미 세계의 유행병이 되었으며, 이제 "지구 자체를 거덜낼 징후조차" 보이고 있다.

저자들은 고독감, 늘어나는 파산, 점점더 높아지는 노동강도, 환경오염 같은 증상도 사실은 어플루엔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소비지상주의 사회의 강박적 물질욕이 우리의 삶, 건강, 가족, 공동체, 환경에 입히는 피해를 심도있게 파헤치고 있다. 또한 쇼핑중독, 과중한 스트레스, 가족의 동요 등 병의 제증상에 대한 진단과 그 증상들의 역사적, 문화적 기원을 제시하며, '새로운 검약생활', '자발적 단순성 운동' 등의 치료법과 함께 가족과 공동체를 재건하고 지구를 되살리고 존중할 전략들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흥미로운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는 어느정도 약점이 있다. 그것은 지극히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분석들을 마치 생물체의 질병에 대한 진단과 처방처럼 묘사하려고 애쓰다보니 오히려 서술구조가 산만해졌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여러 사람의 저자가 함께 작업한 책이라는 점, 영상물을 글로 풀어 쓴 책이라는 점 등을 생각할 때 어쩌면 불가피한 약점일지도 모르겠다.

"참다운 문명이란 자발적 포기의 기술이다"라고 간디는 말한 바 있다. 우리가 어플루엔자에 감염된 채 맹목적인 소비와 폐기를 그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참된 문명과는 정반대의 길, 즉 야만과 자멸의 길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몇가지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탐욕과 물신숭배의 '병동(病棟)'을 직시하고 참된 행복을 위해 '자발적 포기의 기술'을 배우라고 촉구하는, 보기드문 '죽비소리'이다.

■변홍철/ 녹색평론 편집장

〈어플루엔자〉는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프로듀서인 존 더그라프, 대안운동가이자 문명 비평가인 데이비드 왠, 토머스 네일러 등이 함께 만든 책으로 현대사회의 '소비 중독병'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았다.